



표지사진 : 인도 동게스와리 아 자드비가 마을에서 어린이들에게 봉사 하는 워크캠프 참석자들 (2002. 7)

JTS 통권 37호 2002년 9 · 10월

펴낸날 : 2002. 9. 1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최정연,

이미경, 이순희, 윤미옥

펴낸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수상 소감문

4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6 수자타 아카데미 도서관에서

7 가난한 사람에게 약이 나누어질때

8 젊음, 봉사 그리고 보람

10 인도에서 15박 16일 참가기

12 그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

지금 북한에서는

13 절박한 북한 식량난

후원의 소리

15 최소한 밥은 먹어야 한다

16 좋은 인연

17 한국 JTS와 함께 한 여름

따뜻한 이웃

18 인천에 있는 동그라미 어린이집

20 물품모으기에 노력하신 이웃들

활동보고 및 안내

22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북한지원 사업
국내사업

24 신규회원 명단 및 물품지원

26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8 라진 · 선봉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30 후원프로그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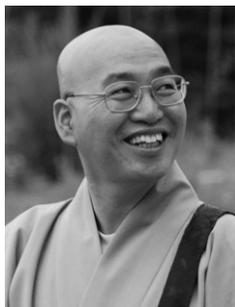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레이몬 막사이사이상 수상 소감문

법륜스님 (JTS 이사장)

저는 인도 뭍바이(뭍베이) 근교에 있는 한 명상센터에서 10일간 침묵하며 명상하던 마지막날 위원회로부터 처음 수상 결정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10일 동안 침묵하면서 오직 자신의 내면만을 살펴보는 비파사나 명상을 하면서 아직도 저의 마음 속에 시비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갈광과 혐오의 뿌리가 남아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제 자신의 평화와 평정도 완전히 이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막사이사이 평화와 국제 이해 부문 상(이하 평화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한 출가한 승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여 마땅히 사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로부터 수상 이유를 듣고는 승낙하였습니다.



저는 이 상은 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남북화해와 인도적 지원을 한 모든 민간단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20세기 중반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로 전쟁까지 치르면서 300여 만 명의 사망자와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냉전구조가 허물어진 지금까지도 서로 적대감을 허물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1995년의 대홍수와 경제정책의 실패로 주민들이 기아상

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진행되던 대북 지원도 1996년 북한 잠수정의 남한 침투로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해 여름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 있는 북한 어린이를 직접 보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한국의 민간단체, 종교단체와 연대해서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돕는 지원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난 50년을 적(適)으로 알고 있던 북한 동포를 돕자는 것은 남한 내에서 큰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굶주리는 어린이만 생각하자고 호소하였습니다.

강원릉목사님, 김수환 추기경님, 송월주스님을 모시고 천주교의 오태순 신부, 개신교의 김명혁목사, 원불교의 박청수 교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서경석 목사, 겨레사랑복녘동포돕기운동의 이해학목사, 유진벨 재단의 스티브 린튼 박사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처음 우리는 한국정부의 반대에도 부딪혔고, 북한에 적대감을 가진 일부 국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정부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좋은벗들의 활동가들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동북지방에서 식량을 구하러 국경을 넘어온 수많은 북한난민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고통받고 있는 난민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인터뷰하여 「북한식량난 실태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호소하였고, 또 「북한난민실태 및 인권 보고서」를 만들어 UNHCR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난민의 구조를 호소하였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사실은 없는 사실'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길만이 그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토회 활동가들이 전개해온 대북 지원을 호소하는 100만인 서명운동과 남북화해를 기원하는 1,000일 24시간 연속기도는 하늘이 감동할만한 지극한 정성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민간단체들의 순수한 인류애와 끝없는 노력으로 2000년 6월 15일 분단 55년만에 남북정상의 만남이라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민간인들은 반세기 이상의 분쟁지역인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꽃피운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이 막사이사이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의 이번 수상은 이 모든 분들의 뜻과 마음을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북한의 식량난과 북한난민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상을 받는 것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이들의 고통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와 난민보호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개인이나 집단, 종교 등으로 인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분쟁의 와중에서 어린이, 여성, 노약자는 더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런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수상결정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 있는 모든 것들에 사랑과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2. 7. 30 문경 정토수련원 법륜합창

법륜스님 막사이사이상 수상기념기쁨과외향의 만남

“법륜스님 막사이사이상 평화부문 수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한반도 평화의 씨앗을 뿌리고 기쁜 당신이 바로 평화상의 주인공입니다.-

함께하는 시간

- 여는 노래
- 영상보고 :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향한 길
- 환영인사 : 유수스님(정토회 대표)
- 축사 / : 영상 메시지
- 감사인사 : 법륜스님
- 수상금 회향의 자리
- 내빈소개 / · 축하공연 / · 다과회
- 닫는마당

- 사회 : 정목스님

일시 : 2002년 9월 10일 오후 3시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문의, 연락 : 02-587-8995, 8756



수자타 아카데미 도서관에서



7월 8일 월요일 3시 역사적인 도서관 개관식이 있었다.

며칠 전부터 도서관 입구를 장식물로 장엄하고 범륜스님, 교무님, 산띠 씨스터, 뿌리앙카 교장 선생님이 테이프 커팅에 참가했다. 학생들 모두가 기쁘고 행복해서 박수소리에 학교가 떠나갈 듯 했습니다.

도서관에는 113종류의 힌디 책과 132종류의 영어 책이 있고 총 1307권의 책이 있다. 모든 책의 표지는 매우 예쁜 색깔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 학생들은 책을 보고 모두 반해서 기뻐고, 첫 날부터 책을 빌리기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줄을 서야 했다.

도서관의 책임자 아르준은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2시 50분까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 3시 부터 3시 50분 까지 도서관의 문

을 연다. 도서관 일은 매우 바빠서 모든 교사들이 회의를 하여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며 아르준을 돕고 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빌려 가는 책을 읽는 즐거움으로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는 잘 해오지 않는 형편이다.

- 뿌리앙카(수자타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

모든 학생들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신 범륜스님과 여류방학에 텔리에 가서 책을 고르고 사준 산띠 씨스터에게 감사드리고 있다. 저도 역시 두 분과 JIS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은 우리들 수준에도 잘 맞고 좋다. 책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도서관의 일은 매우 바빠서 혼자서는 정리하기가 벅차서 힘이 들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돕고 있고, 무엇보다도 책을 빌려 가는 아이들이 기뻐하므로 저도 피로를 모르고 아주 행복하다.

- 아르준(수자타 아카데미 5학년)

우리 도서관에 있는 종류의 책을 발견하고 구입해서 읽는 것은 나에게서는 매우 힘든 일이다. 만약 수자타아카데미에 이런 도서관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책을 내가 읽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이제 7권을 읽었지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을 것이다.

- 닐람(수자타 아카데미 7학년)

가난한 사람에게 약이 나누어 질 때

까미스와리 님 (인도인 자원봉사자, 지바카 병원)

저의 일과는 아침 일찍 병원에 와서
마당을 쓰는 일부부터 시작합니
다.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약을 나누어 주
고, 산띠 씨스터나 결
핵담당 한국 브라더
가 결핵환자들과 대
화할 수 있도록 통
역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x-ray 찍는 일,
혈액 검사하는 일을 돕습
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
게 약을 나누어 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을 느낍니다. JTS가
등계스와리에서 일을 시작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했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기뻐서 함
께 일을 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이나 병이 들면 아픈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약을
제대로 못 사먹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한 환자들을 돕는 것이 더 기쁩니다. 나
는 항상 환자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학 지식이 부족한 채로 환자들을
대하고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많은 책을 읽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허벌 메디신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허벌 메디신은 야생초와 뿌리, 껍질 등으로 만드
는데 인도에는 이런 종류의 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에도 좋고, 인류의 몸에도 매우
좋고, 환자들에게도 좋습니다. 특히 가난한 환자들에게는 이런 종류의 약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허벌 메디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많이 공부해서 우리 마을처럼 가난한 환자들에게 많
은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저의 희망입니다.



젊음, 봉사 그리고 보람

김경희 님 (실무자, 제4차 워크캠프 진행자)



50여 명이 함께 어울려 지낸 15일간!!!

인도에서의 생활이 힘들다고 강조했어도 출발하는 공항에서 참가자들의 모습은 현장의 힘겨움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보다는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설렘으로 모두들 즐거워하고 있었다. 이들을 인도까지 무사히 데려가야 한다는 약간의 긴장감과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언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지는 모르는 일. 별 탈없이 무사히 인도 땅에 발을 디디고 공항 출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선주 법사님을 봤을 때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여러 번 왔어도 아직도 인도는 남의 땅, 낯선 곳. 이 곳을 잘 아는 사람에게 우리 모두를 넘

기는 흥가분함이 함께 있었다. 나중에 들은 얘이지만, 우리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선주 법사님의 긴장은 시작되었다 한다. 그 대신 나는 흥가분해지고, 한 사람이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니 다른 한사람은 다시 긴장감에 휩싸이고 이런 게 인생인가?

인도에 도착하니 기대했던 더위보다는 추위(?)가 우리를 반겼다. 켈커타 공항은 긴 팔 옷을 걸치고도 추웠다. 계속해서 참가자들에게 인도의 더위를 강조했던 내가 무안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잠시, 공항 밖으로 나오는 순간 더운 열기가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했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이 증명되는 순간였다.

인도에서 가장 번잡하고 힘들다는 하우라 역. 젊은 청년, 대학생들이라서 그런지 50여 명이 각자의 가방 외에도 인도 동계스와리 마을과 수자타아카데미에 지원할 의류, 문구, 의약품 등 80여 박스를 기차까지 실어 나르는 일은 그다지 힘든 일은 아니었다. 역시 젊음은 좋은 것 같다.

캘커타에서부터 추적추적 내리던 비는 가야 역에 도착했을 때는 퍼붓듯이 쏟아지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참가자들은 비옷 등을 챙겨 입고 박스를 트럭으로 실어다 놓았다. 동계스와리 지역 입구인 아자드비가 마을에서 버스기사는 많은 비에 길이 패여서 갈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각자의 가방들은 아자드비가 마을의 한 집 귀퉁이를 빌려서 두고 걸어가지고 결정을 했다. 개인 짐들을 근처에 있는 집의 좁은 문으로 다 넣고 가려 하는데, 짐을 싣고 먼저 출발한 트럭이 나오는 것이었다. 한 사람씩 밖에 들어갈 수 없는 문으로 겨우 넣었던 짐들을 다시 일렬로 서서 꺼내서 트럭에 싣고 일부는 트럭 뒤에 짐과 함께, 일부는 비를 맞으면서도 노래를 부르며 수자타 아카데미로 향했다. 도착 후 교육을 받는 이들 동안은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드디어 각 조가 정해진 마을로 작업을 나가는 날은 아침부터 햇볕이 쨍쨍해서 모두 즐거워하던 것도 잠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쨍쨍 거리는 햇볕 속에서 더위와의 전쟁을 치렀다. 작년과 달리 한번씩 지나가는 아이스크림 장사 아저씨는 많은 참가자들을 기쁘게 했다. 어떤 조는 아이스크림 통 속의 얼음을 얻기 위해

서 모든 아이스크림을 사서 동네아이들과 먹기도 하였다. 그냥 얼음 맛 비슷한 아이스크림이지만 동계스와리 지역에서 시원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변화였다. 캠프기간 중에 아칸차(장영주) 시스템가 온면인 냉면을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 얼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예년에 비해서 아픈 사람들이 적긴 했지만 낮은 곳에서 아프다는 것은 가벼운 병일지라도 걱정이 앞서 실제보다 더 아프기 마련이다.

힘들어서 투덜대기도 했다가 해맑은 어린이들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기도 하는 한국의 참가자들! 그런 모습을 보며 안스럽기도 하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기도 하고, 인도 아이들의 모습에, 인도의 날씨에, 인도의 음식에 흐렸다 맑았다하는 참가자들. 생각보다는 쾌적하고 인락한 숙소를 보고 즐거워했다가 저녁이면 모여드는 벌레들 때문에 투덜대는 모습. 인도에서의 캠프가 힘들고 어렵다 각오를 하고 왔지만, 막상 뜨거운 햇볕아래서는 자신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들. 인도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많이 먹지는 못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무더위는 캠프가 끝나면서 함께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도착할 때와 마찬가지로 출발할 때도 비가 왔다.

이번 캠프 팀은 비를 맞으면서 시작해서 비를 맞으며 끝나나보다. 모두 비를 안맞겠다는 생각은 접고, 오는 비를 반기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3월부터 준비한 캠프는 비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인도에서의 15박 16일 참가기



돌산아래 푸

큰 들판 야자수 나무 곳곳에 동그렇게 파인 웅덩이를 지나 시원한 행운의 비를 맞으며 도착한 '수자타 아카데미'는 사전교육을 받으며 내가 상상해왔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그림 같은 큰 정원이 아름다운 곳, 흙 집안에 검은 피부에 예쁘게 생긴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

생각 외의 모습들에 생활하면서도 놀라웠던 점도 많았고 여기 와서 수도 없이 많은 감동을 받으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10시 30분에 차가 오면 짐집시간이 곧 온다는 것

이고,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나타나면 11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나면 6시가 넘는다는 것, 전기가 모두 나가면 9시가 되었다는 것을 시계 없이 짐작할 수 있고 1루피 짜리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행복의 맛을 보았다. 비스킷 2, 3개를 받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받고는 우리에게 모여들어 다시 우리 입에 넣어주는 꼬마아이들... 자신도 넉넉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대로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는 흉내도 내지 못할 것 같다. -김정민(여, 23)-

주르룩 내리치던 비에 기대 반, 걱정 반 터덜터덜 걸어오던 첫날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벌써 떠날 날이 이르렀다. 또 다시 시원한 빗줄기를 맞으며..

아침마다 좀 더 누워있고 싶던 마음들, 아차 드비가로 향하던 길에서 잠시 쉬어 먹던 아침 식사의 즐거움, 벽돌을 나르던 기억...

맹벌 아래,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고 웬만하면 힘든 일은 외면하고 싶던 내 마음의 목소리들이 생각난다.

물론 아이스크림 장사가 갖다 주었던 사소한 기쁨은 정말 잊기 힘들 것 같다.

또 아이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걸 하는 후회도 든다. 내가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소중한 그들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예쁜 물감으로 손, 발을 단장해 주기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우릴 계속 기다리지는 않을지... 과연 이 아이들이 밝게 잘 자랄 수 있을지...

- 신보람(여, 21)-

워크캠프. 그것은 내게 '벽'을 허무는 과정이었다. 이제까지 인식하고 있던 '우리'라는 인식의 벽을 한 단계 뛰어 넘어 낯선 인도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도인들 또한 '우리'가 될 수 있었던 인식의 전환 과정, 직접 인도인들과 마주했을 때 그들과 하나가 되기까지의 마음속의 온갖 아집과 집착과 고정관념의 벽을 허무는 과정,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가 감춰 있던 한국사회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 이 모든 벽을 허무는 시간이 워크캠프 기간동안 채워졌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사고의 틀을 정말 크게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류제홍(남, 21)-

아무 것도 바라지 않았다. 아이들은 순수했다. 가난하지만 (나에 비해) 더 행복했다. 그

동안은 각종 매체를 통해 나보다 못사는 사람들도 보긴 했지만 더 잘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알게 모르게 크고 넓은 것, 희고 깨끗한 것, 비싸고 화려한 것에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맞추고 살지는 않았었다...

인도의 가야, 그 중에서도 바가히라는 마을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며.. 어찌보면 사람은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도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하고 모으려 하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더 가진다는 것은 동시에 누군가 가져야 할 몫에서 내가 빼앗은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내가 무관심하고 무지한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들의 것에서 빼앗아서 가지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작정 갖고 보는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 - 박승현(여, 20)-

기온이 40도를 넘어서면 카나홀 작업 현장에서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머리 속이 텅 빈 껍데기뿐이었을 때가 많았고, '나'를 잠시 잊을 때도 있었다. 나를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작업이지만 고된 하루 일과 속의 절반 이상을 나와와 싸움으로 보내야만 했다. 어찌 보면 이번 자원봉사는 인도인들을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함이라 해도 무관할 것이다. 운이 참 좋았다. 무작정 떠나왔는데, 그에 비하면 쉽게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조그만 일에 조급해하고 짜증도 잘 내고 원망도 많이 했던 예전의 나를 이번 캠프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나는 이곳 현지인들의 의지가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그들 자신보다 자식들을 더 위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들의 넓은 시각은 현실을 창조해 나가는데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 박형근(남, 22)-



그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

카필데오 님 (인도 자원봉사자, 가왈비가 마을 리더)

1. 이 일은 마을 개발을 위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한다고 생각해서 올리는 우리 마을의 우물 수리와 유치원 담장 쌓는 일을 완성했다. 예전의 우물 물을 마시고 마을 사람들이 많은 전염병에 걸렸다. 우물을 수리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또한 농사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유치원의 담장이 없었을 때 학교는 항상 열려 있었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생님들의 수업을 방해 했었다.

마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며 어떻게 서로 지원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목욕 프로그램은 마을 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았다. 그러나 진행상의 잘못도 있었다. 목욕 프로그램은 유치원 학생들에게만 진행하고 다른마을 아이들에게는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팀과 마을사람들의 협력이 함께 한 캠프였고 아무런 갈등은 없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며 그들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웠다.

2. 마을사람들의 반응

부자 마을은 좋은 느낌을 받지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플랫폼을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만들고 싶어하고 목욕 프로그램도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하게 하고 싶어한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마을의 개발을 위해서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3. 아이들의 반응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한 아이들은 무척 좋아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은 놀이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어서 아이들은 무척 행복해 했었다.

4. 놀이에 대해서

놀이도 아이들의 미래에 아주 필요하다. 많은 종류의 놀이들을 배워서 아주 좋았다. 마을 유치원에 놀이 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일의 스타일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은 일을 빨리 끝내기를 원했지만 한국사람들은 우물 담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적당하게 잘 섞어 아주 천천히 일했다.

6. 건강치료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 생각에 치료 프로그램은 하루를 잡아서 전체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의미는 전문 건강캠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치과, 피부과, 뼈 등등

* 제4차 워크캠프에 한국인 참여자들과 함께 한 가왈비가 마을 리더



절박한 북한 식량난

자료제공 : Agence France-Presse (AFP)

2002. 06. 20

국제부

충분하지 못한 국제 지원으로 유엔 식량 지원이
절연되어, 절망적인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을 모
면하기 위해 풀이나 해초를 먹을 수밖에 없
다고 지난 목요일 유엔 대표가 발표했다.
WFP 후원의 부족으로 기근에 처한 국
가의 6만5천명의 학생들과 35만 노
인들이 지난 달 식량 공급이 중단 될
수밖에 없었다.

유엔 대표는 기자들에게 북한
에 일주일간 머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기 위해 애쓰고 있
는지 그가 목격한 것을 이야기하
고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
이 가방을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 풀
을 넣어 내려온다. 여인들은 해변가에
서 먹을 만한 해초들을 고르고 있다. 또
한, 아이들이 들판에서 풀 뜯느라 학교 출
석률이 떨어지고 있다. 유치원이나 보육원의





보모들을 포함해서 선생님들 또한 똑같은 이유로 수업을 하지 않는다.” 또한 그가 어느 삼학년 반에 가서 여덟-아홉 살 난 학생들 25명에게 지난달에 고기를 먹었냐고 물었을 때 먹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그 중 3명 뿐이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사람들이 먹는 기본적으로 주된 것은 옥수수이다. 아주 이따금 달걀 하나와 야채를 아주 조금 먹는다. 그리고 그게 전부다. 고기, 쌀, 식량은 전혀 없다. 단백질은 거의 없다.” 고 전했다.

당국에서는 다섯 살 이하의 북한 어린이들 중 45%가 만성 영양실조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WFP에서는 지치는 후원 (donor fatigue - 장기간 지속되어온 후원으로 후원금이 줄어드는 현상) 현상과 전쟁으로 피폐한 아프리카와의 수요 경쟁 그리고, 북한 경제 개혁이 평양정부의 관성으로 악화됨에 따라, 후원이 올해 들어 점점 줄어들음을 여러 달 동안 경고를 해왔다.

5월 WFP는 절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지속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 주민 백 만명으로 식량제공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WFP 식량원조가 없으면, 정부 배급 일인당 하루 평균 350g만 받게 되는데, 이것은 WFP 최소 일일 식량섭취 권장량의 절반밖에 안 된다.

WFP는 61만1천 톤의 식량을 올해의 후원량으로 요청했지만 5월까지 그 절반만을 받았을 뿐이다. 추가 식량이 확보되어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운송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WFP는 백만의 북한 주민들에게 8월초까지는 이 사업을 재개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당장 더 많은 후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어떤 식량 배급도 일시적일 뿐이고, 그래서 결국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배급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소한 밥은 먹어야 한다

정의정 님 (회원, (주) 파워마인드컨설팅 대표)

어렸을 때가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나의 할머니는 지나가던 걸인이 동냥을 청하면 반드시 불려 밥을 먹여 주셨다.

아주 어린 나는 그 걸인들의 배고픔을 보기보다 그들의 남루한 옷차림이 무섭고 눈치를 보는 그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어른 등 뒤에 붙어서 그들을 바라본 기억이 있다.

나이 들어서인가.

평수가 작은 중공 아파트에서 살 때 돛자리를 팔러 다니는 상인이 있었다.

점심때까지 지났는데도 하나도 팔지 못한 모습에는 배고픈 흔적이 완연했고 물 한잔 청하는 그에게 빵에 잼을 발라 주자 정말 게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

이 세상에 가슴 아픈 일이 어찌 한 두 개이나 만든 배고프고 먹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힘

든 일인지 매일 세끼 밥을 먹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알겠는가!

나와 제이티에스와의 인연은 이렇게 모든 이에게 최소한 밥은 먹어야 한다는 할머니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

때로 귀찮고, 때로 돈이 없어도 발걸음은 행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이 돈을 보내

지 않으면 굶어죽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의 이런 맘이 통했는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돈을 모아서 탁아소 결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모든 일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낀다.

이 세상에 굶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면 세상에 굶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는 아주 작은 내 소망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꿈을 꾸며 이 글을 쓴다.





좋은 인연

김경화 님 (회원, 주부)

글을 써 본 적도 오래 전이고 가끔 친구들에게 편지 보내는 게 고작이었는데..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잘났든 못났든 몇 줄의 글을 써 보기로 했다. 참 행복한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고 있다. 사람과 또는 환경과, 자연과, 어떤 일들과 그 중에 제가 스물 여섯 되던 해에 시절 인연이 닿아 JTS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 당시 경주에 있는 동국대학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퇴근 후 친구와 함께 병원 옆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를 가게 되었다.

그 날 도서관 앞 광장에는 인도 어린이들이 기아에 시달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전이 전시되고 있었다. 사진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는 저는 호기심에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진을 한참동안 열심히 보게 되었다. 초롱한 눈망울은 해맑은 어린이인데 몸은 차마 보기가 안스러운 사진들이 대부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그날 JTS에서 준비한 사진전을 통해 나는 작은 보시의 인연을 맺었다. 그 때는 신심도 없고 철없던 불자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도도 좀더 많이 하고 불교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며 조금씩 부처님께 다가가고 있는 불자

가 되었다. 신심을 내면 낼수록 세상에는 보듬고 안아 주어야 할 많은 슬픔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였다.

JTS에서 앞으로도 더 많이 부처님의 자비를 널리 알리고 배고픈 어린이들과 아픈 사람들을 우리 이웃에 소외된 이들을 감싸주시기를 바란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어야겠다. 말보다 앞서 실천하고 오늘도 세계 오는 모든 인연들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여름 햇살은 창문에 부딪쳐 하얗게 부서진다. 이 눈부신 햇살이 제 무디고 맑지 못한 마음까지 하얗게 하는 날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과 JTS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한다.



한국 JTS와 함께한 여름

최정욱 님 (자원봉사자, 한양대 기계공학부4학년)

내가 한국 JTS를 접하게 된 것은 학교 사회봉사단의 게시판을 통해서이다. 나의 마지막 방학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사회봉사를 하기로 생각했었고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지원하게 된 한국 JTS와의 만남을 통해 뜻깊은 여름이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지원한 곳은 자원개발부인데 기증 받은 여러 물품을 정리해서 그 물품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하는 일이었다. 순간적으로 쉬운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은 있었다. 하지만 다른 학생이 꺼려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자원개발부와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 같았다. 분명 우리는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처음 자원봉사자 교육을 가서 만난 최대원심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선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분명 선생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지만 마음의 장애는 없는 것 같았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선생님의 인상에서 느껴졌다.

아무튼 교육을 통해 나는 정도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한국 JTS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다. 처음에 용인에서 하루 종일 집을 나르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여러 가지 생필품을 받아볼 그들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뿌듯했다. 물건 정리를 하다보니 다양한 물건이 나오는 것 같았다. 우리에게 쓸모 없을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한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처음 이 많은 물건들이 모아지기 위해서는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상당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곳이 더 많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다.

이 날 아침 신문지상에는 은행 부실로 인한 국가 공적자금 투입으로 많은 부채를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기사를 읽고선 마음이 씩씩했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나니 마음이 한결 좋아졌다. 그리고 얼마 뒤 아프가니스탄으로 구호 품들이 떠나게 되었고 그 빈자리는 또 다시 채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한국 JTS와 함께 하면서 나의 여름은 지나간 것 같다. 이번에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었고 사회를 보는 시각도 많이 바뀌게 되었다. 내가 살아온 뒤 안길을 돌아보면 너무 앞만 달려 온 것 같았다. 약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국 JTS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보람된 시간이었다.

인천에 있는 동그라미 어린이 집



공형선 님

지난 7월 인도에 가지고 갈 물품을 정성껏 모아주시고, 통일돼 지 저금통 모으기도 열심이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이 있는 '동그라미 어린이집' 공형선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1. (사) 한국제이티에스를 알게된 동기는

1998년 2월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IMF가 전 국토를 어렵게 할 때라서 저도 힘든 하루하루가 계속 되었으며 늘 불교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그램에서 JTS 활동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아직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기본 생활마저 안 되는 어려운 인도와 북한 어린이를 도와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전화번호를 메모했고, 그 후로는 지금까지 매월 그들을 조금씩 돕고 있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2. 설립한지 언제이고 선생님과 원생은 몇 명인가요.

1998년 2월 동그라미 어린이집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선생님은 8명, 원생은 160명입니다.

3. 통일돼지를 모으게 된 동기와 어린이들의 호응도는.

아름다운세상을 통해 북한과 인도어린이 돕기 방법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종교를 믿는 부모들이 반대 할까봐 많이 망설이다가 어려운 어린이들을 돕는 순수한 마음이므로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용기를 내서 JTS 담당자에게 통일돼지저금통과 북한실상 비디오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생들에게는 비디오를 보여주고 각 가정으로는 협조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종교를 초월해 부모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고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몇 백원에서 몇 만원까지 정성껏 협조해 주었습니다.

4. 이번 인도에 보내는 물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모으셨나요.

가정통신문을 통해 옷이 필요한 인도 어린이를 돕는 방법과 취지를 설명하고 원생 가정으로부터



동그라미 어린이들의 재롱잔치

더 재활용 가능한 의류를 협조 받았고, 새 옷은 원복 납품업체에 협조를 부탁해서 원가로 구입해서 보내주게 됐습니다

5. 원을 운영함에 있어 보람된 일과 어려움이 있다면.

항상 때문지 않은 순수한 어린이와 함께 생활 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 저 자신이 매일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원을 처음 운영할 때 가졌던 마음이 흔들릴 때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어렵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6. (사) 한국제이티에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작은 이슬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활동하시면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가득 하리라 믿습니다.

7. 앞으로 희망이 무엇인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물품을 모으기에 노력하신 이웃들

김애경 님 (실무자, 자원개발부 부장)



북한 라선 시와 인도에 있는 유치원에 체중계 115개, 줄자 230개를 유치원 한 곳에 체중계 하나와 줄자 두개씩 보냈습니다.

예전 우리네들이 학교에 다닐 때 얇은 속옷만 입은 여자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가슴에 손 가리고 몸무게 달고 가슴둘레 재고... 윗통 벗은 남자아이들도 괜스레 쑥스러워 하던 날... 그런 모습으로 인도 어린이들과 북한 어린이들이 치수재고... 하루 재미있겠지요. 얼마만큼 자라나 얼마만큼 튼튼해졌나...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도록 마음내주시신 분들은 박향훈님과 임순옥님이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그래서 물건만 찍었습니다. 2002.8.2

올해 부처님오신날특집으로 KBS1TV에서 방영되었던 '길 위의 불자들' 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눈물짓게 하는 아이들. 그들의 삶들. 가슴을 저리게 하는 많은 그림들 중에서 멈추어 보게된 그림장면이 있습니다.



구루병에 걸린 12살 빠르밀라의 모습입니다. 빠르밀라는 샌달을 손에 끼고 앞발 역할을 하고 한발은 뒤를 바치고 한발은 덜렁거리면서 먼길인 돌산을 넘어 걸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여자아이입니다. 빠르밀라의 모습을 보신,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을 보신 마산의 박근숙님께서 마음을 내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초 인도에 갈 때 인도에서 250컬레의 슬리퍼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생긴 슬리퍼를 빠르밀라가 신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 명 한 명 일일이 다 신경주시는 선생님. 모든 것이 감동이지요. 보시 물을 내신 것이나 보시 물을 받는 사람이나 보시 물 모두 청정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곁들여 감동까지 올라오니 더할 것이 없습니다. 2002.8.2.

월곡동 전철역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접어들면 이동통신이 나오고 세탁소가 있습니다. 그 밑 지하에 작은 공장이 있는데, 보영섬유라는 팻말도 없이 몇 명 앓되는 식구들이

모여 작은 옷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화로 통화했던 실장님을 찾으니 앞치마를 두른 그대로 맞이하시며, 어린이옷 500장이 들어있는 3통치를 전해줍니다. 성당에서 하는 고아원에도 보낸다 하시면서, 인도에 보낼 어린이 옷 뿐 아니라 일하는 것에 힘을 주셨습니다. 2002.6.21.



‘파파리노’로도 더 알려져 있는 (주)서양물산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옷을 후원해 주십니다. 2000년 겨울에도 북한후원물품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귀한 물품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김홍근, 유성현님과 윤부장님께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물건을 차에 실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2.7.26.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에 계시는 이종소님께서 신발을 보내주셨습니다. ‘대창상회’를 운영하셨는데 이번에 가게를 정리하시면서 남아있던 모든 신발을 넘겨주셨습니다. 마대 15개와 큰 상자 3개 분량으로 384켤레의 운동화입니다. 물건 앞에서 계신 사모님의 차렷 모습 정말 정겹지요. 우리네 어머니 모습입니다. 2002.6.7.



서울에 살고 계신 진정연님께서 세수비누 2,000장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그분의 따님인 최소영님께서 스키etch복과 크레파스를 각각 1,000개씩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모녀의 모습입니다. 그림 뒤에 숨겨 전해지는 따뜻한 분의 온기, 웬지 시원합니다. 2002.6.3

선린학원은 통일돼지저금통을 열심히 모아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인도에 있는 친구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입었던 예쁜 옷을 보내왔습니다. 원장님은 새 옷 100여장을 구입해 주셨고, 옷 공장 월드에서도 80여벌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2002.6.25.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제4차 JTS국제워크캠프 참가자들이 캠프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 인도 등게스와리에서 15박 16일 캠프를 마친 참석자들이 7월17일(수) 오후 4시30분 인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번 캠프의 참가자는 50명이며, 이들은 5개 마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바가히 마을에는 사위장과 우물을 수리해주고, 까나홀 마을에는 사위장과 핸드펌프 플랫폼을, 반갈비가 마을에는 유치원 담장을, 아자드비가 마을에는 사위장을 만들어 주었고, 소라지비가 마을에는 유치원 담장과 우물 수리를 하였다. 모두들 숨은 재능이 많아서 등게스와리 마을 유치원들이 환해졌다.

KOPION(세계청년봉사단)과 함께 하는 6개월 자원봉사자 사전 교육 및 파견



인도 등게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6개월 자원봉사자 7명의 면접이 6월21일 중앙일보사 세

미나 1에서 있었다. 최종 선발된 4명의 봉사자들과 JTS를 통해 지원한 2명의 봉사자 총 6명이 8월 5일-6일 정동서관 강당에서 단체 소개와 인도 현

지에서 활동에 대해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8월 23일 인도JTS로 출발했다.

인도에서 지원 봉사하던 김동훈, 정상민님 한국에 오다.

지난 7월28일(일) 인도 등게스와리 수자타아카데미 기술학교공사 담당을 하던 정상민님과 7월30일(화) 지바카병원에서 결핵퇴치사업을 하던 김동훈님이 1년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김동훈님은 대한결핵협회에서 객담교육을 받은 후 10월 초에 다시 인도로 파견될 계획이다.

대한결핵협회 인도JTS 결핵퇴치 담당자 객담교육 실시

대한결핵협회의 협조로 지바카 병원에서 결핵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 김동훈씨와 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8월 12일부터 3주간의 일정으로 객담교육을 받았다.

북한 지원 사업

8월 북한어린이지원사업 및 박지나이사님 병복

나선시 탁아소 유치원어린이 영양식 원재료로 분유 12톤, 설탕 18톤, 신채검사용 체중기 100개, 줄자 200개를 8월 12일 부산에서 나선으로 보냈다. 그 이외에도 어린이 의류, 문구류, 가방, 비누, 여성 생리대용 광목 등 221박스를 같이 보냈다. 이번에 간 물건의 인수와 배분을 위해서 JTS 박지나이사님이 8월 19일-24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국내 사업

법륜스님, 막사이사이상 평화상 수상, 시상 축하 행사 개최

2002년 7월29일(월)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

는 레이먼 막사이사이상의 올해 수상자로 JIS의 이사장님이신 법륜스님이 평화 국제이해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법륜스님은 정치적 정파에 개의치 않고 북한동포돕기와 북한난민 지원으로 남북의 화해에 미친 큰 공로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시상을 위해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하였고 강연과 시상식, 환영회 등이 있었다. 스님의 상상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연이 정교회 주최로 9월 10일 오후 3시-5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많은 분들을 보시고 개최할 계획이다.

아프카니스탄 난민어린이 캠프 물품 지원

지역 정토회와 업체에서 후원해 주신 생활 필수품들이 파키스탄 국경변 아프카니스탄 난민촌인 '바주르캠프'의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게 되었다. 바주르캠프는 1,800명 난민이 체류중이며 캠프내 어린이들은 6,500명이다. JIS에서 지원하는 물품은 의류, 신발, 문구류, 생활필수품 등 259박스이며 캠프내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번 지원은 '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과 함께 진행하였고 7월23일 부산 신선대 CFS에서 컨테이너작업을 하고, 27일(토) 부산항에서 배로 출발하였다.

현대택배 무료운송



비오는 23일(화) 용인에서 부산까지 현대택배에서 12톤과 2.5톤 차량으로 아프카니스탄 난민촌 지원 물품을 무료로 운송해 주셨다. 이날 비가 무척 심하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려해 지속적으로 무료 운송을 지원해 주신 현대택배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비오는 23일(화) 용인에서 부산까지 현대택배에서 12톤과 2.5톤 차량으로 아프카니스탄 난민

장애, 비장애 청소년 캠프 참석자 JIS 방문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과 장애인 편의시설축진 시민연대에서 주관하는 수도권 지역의 각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2002년 청소년 아카데미 플러스(+)'캠프 진행 중 참석자 6명이 제3세계 어린이들의 인권문제를 공부하기 위해 2002년 7월 25일 본회를 방문하여 인도, 북한 홍보 비디오 시청, 나누기, 점심 식사, 소감문 쓰기 등을 하였다.



민간단체(NGO)의 국제협력활동 사진전

한국해의원조단체협의회 주최로 2002년 8월13



일(화)-20일(화)까지 지하철해화역 미술전시관에서 해외원조단체들의 활동사진전이 개최되었다. JIS에서도 인도 등게스와리 수자타 아카데미와 지비카 병원, 마을개발사업의 활동사진이 전시되었고, 많은 이들의 호응이 있었다.

동화작가 김중미씨 JIS 북한돕기로 2천만원 지정기탁

도시 번두리의 가난한 어린이들의 삶을 소재로 한 '팽이부리말 아이들'의 작가 김중미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JIS에 북한돕기로 2천만원을 지정 기탁하였다. 김중미씨가 지원한 후 원금으로 하반기에 함경북도 지역의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내복 6,000벌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천 만석동에서 지금도 공부방을 하고 있는 작가의 지원이 북한어린이에게 따뜻하게 전달될 것이다.



신규 회원(개인, 단체) 명단

2002년 6월 13일부터 2002년 8월 15일까지 등록된 회원입니다.

북한 어린이 결연

이영순211-02632-11
 박재영211-02635-11
 김민정211-02633-11
 오이동211-02636-11
 김금숙211-02634-11
 김인숙211-11485-11
 박숙희111-00007-11
 김윤정211-11470-11
 정운철211-11482-11
 김송희211-11484-11

인도 어린이 결연

권수경111-02688-14
 이상갑111-02697-14
 김하식111-02689-14
 이영조111-02698-14
 손을룡111-02691-14
 천중훈111-00013-14
 이금봉111-02699-14
 백금희111-02700-14
 이상환111-02691-14(실무자)
 정평화111-02693-14
 신영숙111-02694-14
 김연숙111-02701-14
 이계영111-02695-14
 조덕희111-02681-14
 신동희111-02696-14
 김영숙111-02702-14
 박숙희111-00007-14
 이계성211-02487-14
 양신자211-00464-14
 한규매311-00149-14
 성은아211-11466-14
 장희수111-02734-14
 최해일111-00032-14
 김영수111-02725-14
 박정진111-02736-14

박지원박규동111-02738-14
 정홍식111-02739-14
 김현정111-02749-14
 류형주111-02741-14
 김운상111-02742-14
 정명수111-02743-14
 강민욱111-02744-14
 김윤정211-11470-14
 배점실111-02723-14
 박태은211-11471-11
 오영매111-02724-14
 박력현111-02705-14
 법원스님111-02726-14
 청계심111-02706-14
 한옥자111-02727-14
 김미미111-02707-14
 조철영311-00154-14
 오재정, 오승원111-02708-14
 허은봉 211-11468-14
 한복스님111-02709-14
 정암스님111-02731-14
 장승영111-02710-14
 정평훈311-00168-14
 문만욱111-02711-14
 이천오111-02732-14
 민남이111-02711-14
 김현정111-00005-14
 이순례111-02713-14
 박형근111-02751-14
 홍성길111-02714-14
 배희순111-02749-14
 보공화(대흥사)111-02715-14
 서경순111-02748-14
 김희주111-02716-14
 임영애111-02747-14
 병월심111-02717-14
 이은순111-02718-14
 민영심111-02719-14
 십력실111-02720-14

김명우111-02721-14 보덕행111-02722-14 결핵퇴치회원

이규태, 이종은, 이종진
 211-00050-13
 권영미311-00077-13
 윤재희111-02671-13
 최용선311-00078-13
 이은숙311-00031-13
 윤명옥311-00066-13
 박형주, 김유진, 김유미
 311-00044-13
 오승민311-00045-13
 배원준, 배정관311-00047-13
 정복숙311-00046-14
 기덕규311-00048-13
 유인권311-00049-13
 송해진311-00090-13
 황봉석311-000134-13
 허중도311-00135-13
 박창재311-00136-13
 윤원길311-00137-13
 남정희311-00138-13
 박진현311-00139-13
 김민정311-00140-13
 고운경311-00141-13
 이숙원311-00142-13
 강원숙311-00143-13
 최해담311-00144-13
 정동호311-00145-13
 박인숙311-00146-13
 안지현(중근스님)311-00147-13
 하근수311-00152-13
 엄기대, 김순기311-00153-13
 황승오111-01633-13
 송원범311-00156-13
 김중규311-00157-13
 황주용311-00158-13

최영균311-00159-13
 윤슬기311-00160-13
 윤남숙 311-00161-13
 정덕연311-00162-13
 김성수311-00163-13
 배종태311-00164-13
 주차식311-00165-13
 조진규311-00166-13
 김형수311-00167-13
 정수길311-00169-13
 김태정, 김태진311-00170-13
 김창삼311-00171-13
 유인자311-00172-13
 이근희311-00173-13
 김윤희311-00174-13
 김남식311-00175-13
 박형주, 김유진311-00176-13
 박영준311-00177-13
 권혁자311-00178-13
 임순자311-00179-13
 여래광311-00180-13
 정홍식111-02739-13
 김순옥311-00183-13
 김종욱311-00194-13
 김유진311-00195-13
 김중준311-00196-13
 최창주311-00197-13
 최광수311-00187-13
 최재성311-00189-13
 박유경, 선중, 김준수, 순남
 311-00191-13

단체 결연

인터GMT212-11486-11
 두만강철도침묵제재탁아소
 인헌중전교생
 212-11469-11
 아동병동유치원

특별후원금

벽속스님(26만6천) 인병길(7만5천) 마산법당(5만) 임대용, 정이순영가(200만)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4만2천2백5십) 김미정(36만) 회광사여행자일동(5만)
 대구법당컵등관매(8만4천5백) 부산법당웃관매(2십5만8천2백) 외환신용카드(2
 십4만5천) 인도병원후원금(5만) 정토대OB팀(6만) 이찬이영가(정영수)(130만) 익명(결핵)(15만) 김재영영가(최현
 순)(10만) 황규영영가(대전)(100만) 김민혜(10만) 운문사사교반스님(10만)기홍진(160만) 김미영(59만) 박종천(3만
 2백) 은천초교(1만1천7백) 청년정토불자등반대회(2십만6천) 허서중(10만) 김진도영가(한영린)(300만) 김재영(최
 현순)(10만) 부산불교자비원봉사회(150만) 김재희,김기숙,김조운(100만) 흥제동청년정토회(1백2십2천3천5백) 배
 희순(2천만) 배정관(결핵)(100만) 이상진영가(10만) 윤희자(20만) 부산청년정토모금(60만) 보리모임(5만3천) 전영
 봉(10만) 진정연(200만) 임순옥(2십만2천) 이정선(130만) 박형주(15만) 임종오(10만)원 인도의약품 대구정토법당
 김명희 외 37명 (2백1십5만) 중국동포돕기물품(수건) 서울정토법당 이경영 외 12명 (7십7만5천) 마산정토법당 김
 형수 외 15명 (80만)

물품후원

6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도착된 물품입니다.

- 1) 청주정토법당 수건53장, 치약32개 외 생활필수품 3박스
- 2) 서울정토법당 수건236장, 치약103개, 칫솔104개 외 생활품 7박스, 재활용어린이옷 12박스
- 3) 장미면 비옷165장, 영양제100통
- 4) 차용백,백정숙 추리닝56벌
- 5) 세종유치원 재활용어린이옷 2박스
- 6) 김복순 스케치북120권, 노트200권, 연필720지루, 손수건21장, 모자31개
- 7) 하석정 어린이옷80장, 모자28, 타이즈3
- 8) 권혜숙 문자놀이 45장
- 9) 정토회사무국 수건29장, 린넨17장 외 잡화 3박스
- 10) 조선경 목욕물비누128통, 비누117개
- 11) (주)서양물산(파파리노) 의류990피스
- 12) 대구정토법당 면생리대천 50필
- 13) 대전정토법당 (권순호,황귀숙,조영숙,유인자,차정희,전외자) 면생리대천10필, 수건23장
- 14) 광주법당 비누60개 외 생활품 2박스
- 15) 한정옥 여성브라우스 5장
- 16) 부산스킵사 수건7, 린넨6, 팬티3 외 생활품 1박스
- 17) 현대택배 11톤과2.5톤 무료운송지원 (웅인-부산 산선대(CFS))
- 18) 대한통운 5톤 무료운송지원 (웅인-부산재승CY)
- 19)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여자교복100장,어린이의류 15박스,속옷13박스,장남감1박스,각도기1박스

• 중국과 인도에 보낼 물품을 정성껏 모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입금자

2002년 8월15일 현재 후원금을 보내주신 회비입니다.

주소를 몰라 소식을 보내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연락이 되면 꼭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윤미옥 587-8995)

- * 현금 - 최윤정(6만5천) 임환희(3천) 신정원(1만) 송신옥(1만) 정보경(3만5천) 백미숙(30만) 권소영(10만원) 이경화(5만) 김준기(5만)
- * 단위농협 - 김동숙(2만)
- * 신한은행 - 윤금주(5만)
- * 주택은행 - 이혜성(1만) 손연화(대구)(10만) 임은숙(대구)(9만4백4십) 신금희(대구)(3천) 김삼률(대구)(10만) 정삼덕(5만) 한경선(1천)
- * 주택제이 - 익명(부산)(1만5천) 강재연(1만) 이한숙(2만) 김경주(3만) 정삼덕(5만)
- * 국민결연 - 채세희(10만) 왕정미(1만) 김재은(1만) 안병주(6만) 양혜윤(10만) 김가영(5천) 이영자(10만) 서연수(1만) 김금중(2만) 정우일(10만)
- * 외환제이 - 박정선(2만) 이명규(2만5천) 조귀자(5만) 김도현(1천)
- * 국민동포 - 이성숙(2만) 송진아(1만) 황수경(3만)
- * 국민제이 - 김점순(1만) 서연수(1만) 정기석(1만) 박은숙(1만) 백순이(5만)
- * 농협제이 - 김은숙(1만1천) 신경화(2천) 황영애(1만) 상동제(10만) 박순자(2만) 이옥지(1만) 신순화(5천) 노재성(1만) 이철환(2만) 김순덕(5만) 강해수(1만) 한만석(6만) 신경화(1만) 강지나(4만)
- * 한빛제이 - 김지복(2만) 박주영(1만) 원지혜(7천) 김현정(5천) 류형주(5만)
- * 조흥제이 - 임창호(1만) 이미경(5천)
- * 제일제이 - 이천오(2만)
- * 서울제이 - 홍윤숙(2만)
- * 신한은행 - 윤금주(5만)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2년 6월 13일부터 8월 8일까지 통일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서울

● **개인** 강민석 1,620 강복배 29,070 강상욱 2,000 강애나 31,880 강애니 31,070 강재연 31,090 강지영 35,220 강지영 20,650
 김학용 2,250 고민호 34,380 고석급 15,780 고석급 18,040 공영태 6,450 권상복 15,300 권윤희 10,000 권정원 50,000 권혜숙
 45,420 김광일83,500 김광철 1,100 김나미 1,660 김다솜3,600 김동욱 33,510 김리할 1,680 김명일 1,100 김명학 1,300 김명화
 1,830 김미혜 33,050 김민석 2,140 김보경 6,250 김복경,윤경 25,010 김성숙 1,150 김성주 12,630 김세희 4,570 김소라 25,110
 김소연 4,450 김수경 4,600 김수규 3,470 김순희 3,000 김승이 25,250 김애자 14,970 김연진 11,760 김연희 2,000 김영남 김
 신욱 20,000 김영범 21,610 김영숙 7,510 김옥정 12,680 김용철12,700 김익구 11,830 김재령 23,760 김재령 34,320 김재천
 5,000 김재천 5,000 김정규 65,660 김정선 2,040 김정숙15,970 김정희 1,600 김중숙 7,400 김준홍1,100 김중수 19,850 김지성
 3,610 김지영 33,680 김진성 2,200 김찬민 25,090 김천열 1,780 김학철 1,800 김해라 3,330 김향 28,600 김현숙 17,000 김혜련
 20,000 김혜련 20,000 김홍길 23,010 김희오 40,100 나형식 3,620 남계희 28,010 남동우 26,990 남유나 10,580 남주연 13,200
 남화순 29,330 남희원 8,610 무명 16,360 무명 24,820 무명 22,090 무명 19,250 무명 500 무명 400 무명 1,120 무명 2,300 무
 명 400 무명 3,000 무명 200 무명 1,700 무명 3,800 무명 510 무명 300 무명1,000 무명 2,000 무명 1,300 무명 300 무명 1,000
 무명 1,400 무명 1,400 무명 2,200 무명150 무명 1,000 무명 500 무명 400 무명 800 무명 1,680 무명 1,500 무명 350 무명
 1,000 무명 1,100 무명 1,400 무명 4,000 무명 1,000 무명 700 무명 1,130 무명 7,280 무명900 무명 1,070 무명400 무명 2,000
 무명 3,000 무명 1,000 무명 3,000 무명 500 무명 5,700 무명 1,800 무명306,790 무명 14,720 무명 11,730 무명 14,690 무명
 73,640 무명 16,700 무명 12,600 무명38,500 무명 183,830 무명 40,400 무명 2,830 무명 3,680 무명3,190 무명 3,020 무명 15,000
 무명 6,220 무명 4,000 무명 2,650 무명 10,820 무명23,460 무명 353,470 무명 600 무명 8,650 무명 14,810 무명 5,250 무명
 1,250 무명 300 무명 2,910 무명 3,250 무명 1,000 무명 810 무명 10,000 무명 3,000 무명 1,770 무명씨 38,630 무명씨39,320
 무명씨 5,220 무명씨 19,720 무명씨 13,360 문병룡 35,190 문인재 27,160 문형근 4,200 박경진 2,400 박경희 27,500 박광열
 23,410 박길순 1,800 박분희 1,400 박상수 990 박상철 10,000 박서진 20,430 박성숙 2,900 박영자 20,200 박은선51,330 박이슬
 910 박재현 1,590 박지현 27,600 박지훈 153,250 반민정 4,300 배영희 1,500 배임순 100,000 백단식 47,700 백혜진 30,000 백
 혜진 30,000 변순옥 2,240 변지민 25,750 보리행 16,430 서봉순12,430 서봉순 16,010 서봉순 2,990 서봉순 16,950 서봉순
 12,950 성의경 500 손옥순27,300 송정숙 70,000 신미자 46,970 신승희 72,760 신예진 4,060 심비오 9,000 심영숙 8,000 심유현
 21,960 심유현 40,210 안상도 2,680 안슬 5,000 안순옥 12,000 안응연 63,650 양재경 8,760 양호석 1,700 엄지혜 5,100 연가영
 4,050 오윤경, 오정숙 13,140 오현수 32,060 우연 10,100 우정 10,550 유미루 1,680 유미경 10,160 유선아 2,000 유순호 14,150
 유승열19,810 유정희 1,600 유현경 4,690 유현정 19,280 윤남용 29,740 윤미숙 18,110 윤소영 13,270 윤옥순 14,460 윤정국
 18,280 윤주호 10,360 윤표26,350 이경주 1,400 이광노 4,640 이광성 26,080 이광식 20,650 이귀옥 580 이금불 26,360 이동현
 25,650 이명희 32,300 이복전 10,000 이상근 1,620 이상길 1,970 이상림 31,040 이선자 71,470 이소연 700 이승희 19,600 이순
 애 500 이슬희 4,650 이슬화 16,420 이선수 1,900 이은나 4,150 이영아 1,730 이영희2,100 이영희 3,100 이예은 15,400 이유리
 2,000 이은선 20,000 이은호 3,650 이인숙 1,010 이진경17,100 이정순 22,760 이종은 6,650 이지현8,010 이진경 21,330 이창
 원 2,730 이창훈 26,220 이택근 11,470 이현구 62,540 이형민 4,750 이혜순 49,190 이훈 1,410 이희원 이형준 13,940 임동필
 28,300 임방희 11,410 임숙미 27,350 임순 5,910 임양호 33,310 임양호 심유현 28,090 임준자 4,410 정도연 16,050 정정호
 31,930 장춘희 3,300 장학철 1,050 전경연4,000 전용완 30,720 정명숙 22,520 정미진 8,300 정상우 24,310 정수희 28,940 정영
 자 30,610 정옥단 2,000 정유희 32,680 정은희 5,870 정정숙 14,190 정진영 20,680 정혜윤18,770 정희준 21,870 조경연 52,630
 조동희 28,800 조성민 26,920 조정숙 1,000 조춘희 3,150 주연선 4,100지금련 13,040 차영환 8,070 채성욱 1,100 최가연
 21,570 최남숙 9,900 최대영 22,190 최매이 이철용 3,000 최보람 2,060 최성지 540 최연주 24,410 최유정 4,650 최은석
 30,120 최윤희 이승규 28,630 최이선 47,300 최정업14,900 최재한 26,000 최정민 1,270 최진우 27,400 추병우, 추현재 25,050
 한명숙11,490 한인경 1,800 한지혜 1,150 한춘애4,610 한현미 5,460 한혜자 40,390 허서종100,000 허영심 1,800 홍경수 1,450
 홍채옥 1,500 홍혜경 2,000 황경삼 1,350 ● **단체** 고령정보실업고 270,000 금강일렉트 45,740 방학중학교 37,340 자연의집
 63,350 이지페이지 27,160 즐거우어린이집 172,630 하디스 85,600 내일여는집 24,870 1층보시함 577,000 3층선실 454,500
 거리모금 346,760 거리모금315,870

■ 대전

●개인 김금희 3,210 김동렬 2,940 김동열 19,880 김민선 3,150 김선례 7,170 남현정 12,370 무명 1,040 무명 4,700 무명 11,000 무명 6,160 박세진 19,370 박현승 17,210 비계원 28,510 석정수 5,120 유재원 12,230 윤영희 21,790 이규희12,220 이남숙3,110 이문숙 9,160 이순자 2,980 이심용 41,110 조명숙 11,630 한명숙 17,000 황태양 7,430 ●단체 법동초교 2-2 12,620 거리모금 32,200

■ 부산

●개인 강순덕 11,960 강정숙 54,240 강정숙 12,110 구선용 8,210 구자용 12,060 구진영 5,410 구훈희 25,220 김경희 12,650 김기문 21,340 김동민 2,140 김민수20,610 김성민 14,150 김소홍 4,350 김옥련 29,140 김지혜 1,760 김채원300 김태현 14,850 김판수3,660 김홍순 22,250 김홍순 24,430 남한정 9,470 무명 40,800 무명 15,010 무명 49,900 무명 49,120 무명 43,000 무명 11,510 무명 19,260 무명 53,780 무명 13,260 무명 11,800 무명1,630 무명 6,010 문연숙 25,460 문정자 17,280 박경숙 5,720 박계선 35,920 박금영15,000 박상환 4,730 박은정 21,360 박진선 5,630 방황자 41,370 성원어머니 1,350 손소리1,120 신순말 28,780 신인홍 21,490 심이라 4,360 안미숙 16,430 안유형 14,870 오수복 28,300 오은선11,760 윤기영 10,170 윤희림 15,040 이경선 19,660 이금자 10,290 이남선 75,550 이은희10,120 이선호 470 이성자 30,840 이수나 4,660 이용직 33,210 이유정 1,230 이유진 3,120 이민순14,080 이재현 8,070 이정대 13,230 이지현 2,300 이진희 7,810 이창진 1,160 이창형 3,900 임나희2,810 임정화 10,350 임초록 10,860 장세진 1,430 장일선 76,400 장태서 23,970 정기호 4,400 정동남 8,720 정영부 26,000 정윤성 6,770 정윤희 6,500 정정숙 22,100 조광수 3,440 조민수660 조한 7,590 조협21,780 진명철 2,550 최영희 23,840 최정숙 26,840 최정우 24,710 최홍열 7,030 축구공 45,860 허경화 9,030 허성철 5,410 한태현 1,440 허미정 5,260 허애영 37,620 허종구 37,030 황우술 2,680 황해진 3,360 황현정 2,570 ●단체 중앙제7실 8,970 중앙제철 8,150 작은아들 3,130 거리모금 1,514,430 거리모금 834,000

■ 대구

●개인 강혜림 22,570 박진주 3,580 권리한 2,250 권영순 25,420 김미라 10,700 김소연 9,730 김순녀 27,550 김순희 11,560 김시윤 2,040 김양모 25,360 김영수 30,390 김옥자 50,760 김윤석 3,160 김철환 10,350 남영숙 22,050 노영숙 25,930 류경희 32,910 무명 1,210 무명 4,690 무명 22,120 박난주 56,780 박미혜자 27,400 박민숙김해영 26,250 박상호 최정희 27,040 박정선 41,250 변창진 3,150 손연화 40,970 손창원 54,990 송영화 27,820 수성3가 마을금고 18,730 신경혜 9,630 엄옥계 15,270 여재룡 9,880 윤영순19,300 이상진 26,400 이시경 33,050 이윤지 20,110 이태화 24,130 장란규 4,570 전병득 80,400 전병복 78,150 전성수 6,600 전영희 24,380 전현수 2,280 정길진 20,390 정순애 11,360 정원명 8,770 정은혜 4,880 정준범 3,390 조근우 7,300 조영래 22,570 조옥분 30,090 최은곤 44,390 최창주13,100 최한우 5,450

■ 울산

●개인 김순남 26,850 함대근 20,000

■ 청주

●개인 고영숙 20,000 광동오 4,530 광봉준 37,150 광영숙 28,550 권성희 10,820 김낙춘29,110 김동훈 22,070 김명렬 20,000 김명숙 4,670 김용희 32,760 남정숙 5,760 무명씨14,740 민안자 31,940 민응기 24,620 민한식 25,240 박경자 9,030 박영숙 12,800 박옥순32,090 박준자 29,730 박성불심 46,600 서상원 34,660 서예식 41,210 성선숙 5,570 신일남15,240 유기숙 42,180 유다인 19,860 유동욱 18,420 유정훈 27,140 유현옥 23,900 이묘인39,320 이영진 9,580 이은선 24,810 이점순 17,960 이창정행 165,100 이향준 31,330 이현숙13,070 장영애 23,050 전윤숙33,360 정경주 12,960 정남석 23,730 정상신 15,090 조화자70,250 최성진 20,620 홍기자 21,650 ●단체 에이스마트 27,370 거리모금 221,690 거리모금 393,740

■ 광주

●개인 무명씨 10,340 무명씨 24,410 무명씨 17,200 무명씨 14,360 무명씨 26,380 무명씨1,880 무명씨 6,350 무명씨 4,810 조성흥 20,580 한주현 23,090 ●단체 문빈정사 100,000 아제아제바비라이제 500,080 하디스 39,380 거리모금 416,280

■ 마산

●개인 강지은 17,360 강지윤 8,060 김다정 2,750 김동현 27,460 김정희 33,880 김찬민 32,040 김형수 35,810 무명 19,870 무주상 6,300 무주상 22,460 무주상 13,270 무주상 9,140 성현철 40,200 신해임 최재두 23,900 연지행10,120 연지행 12,510 정우식 23,470 진선화21,260 황선옥 54,690 황수민,수재16,000 ●단체 댓거리포장마차 32,510 미산불교대학170,000 삼단모금합 28,290 수도분교 15,850 수도분교 9,300 스포츠헤타 32,770 흥소아과107,870 거리모금 1,549,680 거리모금198,300 거리모금 794,180 거리모금 350,030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2. 8. 15 현재

한 방울의 물이 바다를 이루고 한 줌의 티끌이 태산을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라질 · 넬봉 유치원 · 탁아소 결연현황

2002. 8. 15 현재



후원 프로그램



인도 및 세계 빈민지역 어린이 돕기 후원

1,000원이면 어린이 7명에게 한끼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000원이면 어린이 1명에게 학용품 및 교재가 지급됩니다.
1,000,000원이면 펌프 1대를 설치하여 한 마을의 식수를 해결하고, 각종 전염병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도 결핵퇴치 후원

15만원이면 결핵환자 1명을 위한 검진 및 6개월간의 치료약과 영양식 식사가 제공됩니다.
죽어가는 한 생명 살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북한 어린이 돕기 후원

5,000원이면 탁아소, 유치원, 고아원의 어린이 1명에게 1개월간 영양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체후원은 탁아소나 유치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물품후원

북한과 인도,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기업에서는 재고물품을, 유치원 같은 단체는 몇 장씩 남은 단체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생활필수품 지원**: 비누, 치약, 칫솔, 수건, 양말 등
- 문구류 지원**: 스케치북, 크레파스, 공책, 연필, 펜 등
- 의류 지원**: 어린이 및 어른 의류, 어린이 단체복, 모자, 신발, 가방 등.
- 의약품 지원**: 영양제, 상처치료제, 소독약, 붕대, 거즈, 솜, 구충제 등



사랑의 저금통 후원

예쁜 저금통에 사랑을 모아주세요. 개인 또는 단체, 점포에 비치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북한어린이돕기 정거거리모금행사

서울: 98년 6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명동거리에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매월 둘째주, 마지막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부산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첫째 수요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까지 영남대 앞에서,
한 달에 한번은 상황에 따라 날짜를 정해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산, 대전, 청주, 광주에서는 부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 협찬후원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제티에스와 공동으로 캠페인이나 모금후원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와 사진,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사진전 전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함께 홍보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가능이 있는 사람은 가능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어 JTS가 일구어 가는
기아, 질병, 문맹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해외장기봉사활동(인도): 6개월이상 인도 동게스와리 JTS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 교육(유치원, 초등학교): 한국어, 영어, 컴퓨터, 음악, 미술, 태권도 등
- 의료(지바카병원): 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 마을개발: 무료급식, 건축,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해외봉사단기활동(인도)

- 워크캠프: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7월에 보름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봉사활동

- 사무실이나 창고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사무보조, 소식지제작, 홈페이지디자인, 영상물점검, 후원물품정리, 물품운반, 운전, 차량지원 등